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총주유치 건의문

의안
번호

1479

발의일시: 2013. 02. 19.

발 의 자: 정태갑의원 외 18명

1. 제안이유

최근 충청북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위치선정 문제와 조직·정원 구성 계획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경자구역 정책 취지와는 맞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내 지역 간 갈등 뿐 아니라 노-노간 갈등의 불씨도 키워가고 있음

이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총주유치 당위성과 조직·정원 구성시 충주청원 등 전 도민의 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도록 배려 해줄 것을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건의

2. 주요내용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입지 선정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은 대전제가 되어야 하며 업무의 효율성 과 지역 갈등해소 등 주요 원칙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이 원칙에 따라 충주에 설치되어야 함

나. 조직·정원 구성에 있어서도 충북도청 직원만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충주, 청원 등 전도민의 역량을 집결 시킬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함

3.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4. 붙임 : 건의문 1부.

전 의 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신 수도권 중심시대 충북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난 세월 우리 충주시는 경부선철도, 경부·중부고속도로
등이 비켜감으로써 국가 개발축에서 소외되고 침체기를 겪어
왔습니다

최근 충주시는 고속교통망구축과 충주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지역발전의 기틀을 완비하고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2017전국체육대회 그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지정 등

시운융성(市運隆盛)의 호기 맞고 있어

‘새로운 희망 일등충주’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우리 충주 시민은 그동안 오랜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지역으로 충주댐 위치에 따른 각종 규제와
안개피해 그리고 공군부대 소음피해와 개발 제한 등
여러 가지 불이익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하고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처럼 만에 호기를 맞고
있는 이 시기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충주 유치가

인구 30만 자족도시 100년 번영 충주건설을 앞당겨줄
축대로 작용하길

22만 충주시민은 한마음으로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경제·사회 지표의 60%이상이 집중된 청주권역을
경제자유구역청 입지로 선정하거나

조직 구성원을 도 산하기관 이라 하여 도청 내 직원만으로
구성하려는 계획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그간의 22만 충주시민의 노력과 희생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그간 소외 되어온 충북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충주에 설치되어야 하고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도 충북도청 직원만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충주, 청원 등 전도민의 역량을 집결 시킬 수 있도록 구성 하여 주실 것을 22만 충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인구와 사업장, 고용 등이 청주권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향후 청주·청원통합과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청주권 집중화 현상은 급속히 가속화되고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주에 설치 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무총리실이하 각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각 공기업들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 이전되는 지방분권화의
시대적 흐름속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 배치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충북경제자유구역 총면적 9.3㎢중 충주 에코폴리스는 4.19㎢로써
46%를 차지하며 단일면적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으며
에어로폴리스와 바이오벨리는 이미 상당부분 개발 사업이
진척되어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충주지역에
설치됨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향후 추진 할 음성, 진천, 괴산, 증평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진
업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충주지역의 선도적 개발이
필수적이라 생각 됩니다.

2013년 2월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의회의원 일동